불자 세상보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하려면



정천구
서울디지털대학교 석좌교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다시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위 공직자 일부가 뒷돈을 챙기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일부 하위직 공무원은 퇴근시간을 조작하여 '시간외수당'을 챙기고 있는 사례들이 연이어 보도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부정부패 정도는 2010년 기준으로 선진 21개국 중 그리스·이탈리아·포르투갈에 이어 제4위라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현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는 '공시' 열풍이 거세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지방공무원임용 평균 경쟁률은 87.6:1이라 한다. 현재 공무원은 선망의 직업이다. 정년이 보장되고 연봉과 연금도 기업체 못지않기 때문이다. 이 직업이 부정부패로 얼룩지다니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부정부패의 척결을 내걸었지만 부패는 점점 더 심해졌다. 결국 김영란 법이라 부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9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과연 이 법으로 부정부패가 줄어들까? 반짝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긴 안목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장 눈에 띄는 문제점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제외시켰다는 점이다. 법의 규칙은 보편적이어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어긴 것이다. 이는 또한 신상필법(信賞必罰), 즉 "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 말에는 상은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도 반드시 주어져야 하고 벌은 지위가 높은 자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부패의 근원인 정치부패를 제외시키고 어떻게 다른 부패를 척결할 수 있겠는가?

이 법은 또한 법의 규칙은 확실해야 한다는 확실성의 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다. 뇌물과 향응을 얼마까지는 되고 얼마부터는 안 된다는 규칙은 이상하다. 군율(軍律)에서 도망을 방지하려면 "도망치지 말라"는 금지와 벌칙만 확실하면 된다. 그런데 50보 도망치는 것은 괜찮고 100보 도망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우습지 않은가? 맹자 양

법보다 윤리 내규 우선돼야
법집행서도 원칙 확립 중요

혜왕(梁惠王)편에도 50보 100보라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공직부패 방지법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적용대상에서 포함시킨 것은 더욱 법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공권력의 잠재적 감시대상에 둘 수 있어 국민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려면 공직자 스스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자기 결심과 서약이 먼저 있고 거기에 확실한 금지행위를 명시한 법의 강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불교에서 계(戒)는 스스로 지키겠다는 맹세이고 율(律)은 공동체가 부과한 규칙인 것과 같다. 각 분야의 공직자들이 자정노력으로 윤리강령이나 내규 등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확실한 금지 규칙만을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공직부패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한 자정노력이 결여된 법적 강제만으로는 부정부패의 근절이 어렵고 사회를 질식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중국의 진시황은 법가(法家)를 중용하여 통일에는 성공했으나 법 만능주의로 독재체제가 되어 그가 죽은 후 15년을 못 넘기고 망했다. 그 외에도 법 만능주의가 실패한 역사적 사례는 넘쳐난다. "정령(政令)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은 그걸 면하려 하겠으나 부끄러움을 모른다. 덕으로 이끌고 예(禮)로 다스리면 백성은 부끄러움도 알고 품격도 갖추게 된다"고 한 공자의 명언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특별 기고

국가 안보 위한 숭고한 헌신 이어져야



황경환
동국대 평생교육원 교수

6.25 휴전 협정일 7.27은 북한서는 전승 기념일이고, 대한민국에서는 6.25 휴전 협정일로 기억되며, 미국서의 7.27은 6.25 참전 전몰장병 추모를 위한 국가 기념일이다. 미국은 2009년 상, 하 양원이 만장일치 의결로 7.27 이날을 미국의 모든 관공서서 현충일과 함께 성조기를 조기로 게양하는 19번째 국가 기념일로 선포했다.

여기에는 당시 미국으로 이민 간 26세의 한인 1.5세대인 한나 김(초, 중, 고는 미국에서)이 그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서울대에 역 유학을 하면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고, 이후 미국의 국제 지원 평화 연구소에서 한국전 자료 정리 일을 하다가 6.25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가 조직한 민간단체가 '리멤버 727'이고, 이 민간단체 활동에 감동해 6.25 참전 용사인 찰스 랭겔(Charles Rangel) 하원의원이 한국전 휴전일 7.27을 미국의 19번째 국가 기념일 지정 법안을 발의했다. 6살 때 이민, 캘리포니아서 자란 한나 김은 2008년 워싱턴DC서 '리멤버 727'을 조직하여 2년 넘게 활동했는데, 미 상,하의원 435명의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의회와 행정부를 설득한 끝에 6.25 전쟁 휴전일을 미국의 모든 관공서에 성조기를 조기로 게양하는 '한국전 참전용사 법안'이 통과됐다. 6.25 참전 용사 출신인 찰스 랭겔(Charles Rangel) 당시 미 연방 하원세입위원장은 "한나 김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큰 성과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극찬했다.

그녀는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1만여 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동안 끝없는 홀대와 외면에 지칠 때도 있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려 깊고 헌신적인 몇몇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는 미국의 여성 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마그렛 미드의 충고를 가슴에 새기며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6.25 전쟁에 희생한 국군 장병 전사자 14만9,005명, 실종 13만 2,256명, 부상 71만783명과 미군 전사자 4만3,000명, 실종 3,737명 부상 10만 8,000명, 포로 4,439명(미군의 집계는 국방부 집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비롯한 16개국의 유엔 참전국과 의료지원을 도와준 6개 나라의 숭고한 정의심과 희생정신의 아름다운 용기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

7월27일 갈라진 휴전선 248㎞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벌이는 63년간의 첨예한 대립 상태는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고, 북한은 그 동안 4차 핵 실험을 끝내고 더 개량된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 무기로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엄포를 놓고 있다. 이에 한미동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응 수단으로 2년에 걸친 고민과 검토 끝에 이뤄진 것이 고고도 공중방어 시스템 사드(THAAD)다. 이 레이더 기지 선정을 두고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이었고 총리와 국방 장관이 기지 선정지역인 성주를 지난달 7월15일 방문했다가 6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큰 봉변을 당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 위기 상황이 일어났다. 총리는 만에 하나 전자파로 인해 성주 군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사드기지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이 말이 먹혀들지 않는다. 66년 전 북한의 6.25 기습 남침 배후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었다. 지금 한국에 사드(THAAD) 배치를 러시아도 반대하고 중국도 반대하고 북한은 신경질 적인 반응을 보이며 남한을 향한 공갈과 협박은 그 도를 넘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도 하나같이 자기 지역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 5,000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는 누가 무엇으로 지킬 것이며 어떻게 하겠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정치권서는 뚜렷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일부 야당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서 마저 의견 일치가 되지 못한데서 오히려 성주 군민들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것 같다. 4세기 말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안보에 몰아치는 무서운 먹구름을 우리 국민들은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현각 스님 발언, 환부 도려낼 메스 되길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푸른 눈의 수행자 현각 스님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계종을 비판하며 한국을 떠나겠다고 공표했다. 25년째 한국 불교와 인연을 맺고 있는 스님이 돌연 한국불교와 인연을 끊겠다고까지 한 이유는 실망감 때문이라고 한다. 그 실망감은 스님의 SNS 글에 분명히 드러난다. 상명하복식 유교적 관습, 남녀차별, 기복신앙, 물질주의 등이다.

스님의 비판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는 부분이 물질주의다. 불교계는 그동안 절집을 짓고 불상을 조성하는 등 불사를 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 재원 대부분이 신도들에게서 나오니 소임을 맡은 스님들은 전법·포교보다는 불사금 화주에 매달려 있는게 태반이었다. 사찰에 돈과 물자가 모이니 자연스럽게 권력이 생기고 파벌이 생겼다. 이런 권력을 지키고자 기득권이 생기고 권위주의가 생기며, 차별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찰에 돈이 없으면 되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예가 있다. 잠실에 있는 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일화다. 역사가 20년된 이 복지시설은 재가불자의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와 있었다. 이 곳 봉사자들의 목소리는 하나였다. 복지시설 스님이 어려운 이웃 돕느라 불사를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더욱 뭉쳐서 스님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현각 스님의 비판은 그동안 물질주의에 물들어 온 불교계에 대한 경종이다. 불교계는 자신을 엄격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질에 대해, 그리고 관습·차별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운지 말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외면한 채 기복을 빙자한 돈벌이에만 매달리면, 현각 스님과 같은 수많은 이들은 한국불교를 등질 수 밖에 없다.

중승대 '4년 단기출가'에 거는 기대

조계종립 중앙승가대학교가 4년 단기출가 제도, 일명 'Uni-출가'를 시행한다고 한다. 중앙승가대에서 4년 간 정규대학과정을 이수하면서 출가생활을 경험하고, 졸업 후 구족계를 받거나 사회전문직업인으로 진출하는 것이 골자다. 중앙승가대의 'Uni- 출가'는 출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Uni-출가'의 가장 큰 특징은 졸업 후 반드시 구족계를 수지할 필요가 없단 것이다. 이는 기존 중앙승가대 학인들의 졸업 후 구족계 수지가 의무화였던 것과 차별적인 것으로, 출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입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이다.

또한 기존 단기출가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한 달·100일 등 실제 출가로 이어지기엔 비교적 짧은 기간이란 점을 보강, 출가자들이 예비승려 신분으로서 삶을 살며 보다 현실적으로 출가를 고민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출가 진흥'을 주제로 한 본지의 올해 부처님오신날 특별 대담에서도 전문가들은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는 단기 혹은 기간 출가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실제 대만의 불광산사의 경우 어학 실력 하나로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엘리트로 교육시킨다고 한다. 당시 패널들은 "한국불교도 기간출가를 정하고 엘리트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출가자를 끌어들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가 수행자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Uni-출가'는 출가 문화를 변화시키고, 불교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Uni-출가'의 성공과 활성화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별서(앞,뒤)

◀보석감정서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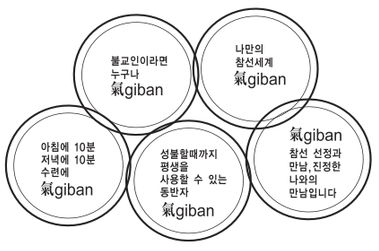
세계 최초 수련 전용 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